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 '19년 기준 최초 제공한 DB에서 최신 인구동태 및 '94~'95년생 추가 제공
-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출생코호트*별 생애주기 변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2년 기준으로 구축해 올해 12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출생코호트: 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 인구동태 코호트 DB :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

올해 구축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2021년도에 최초 제공한 '19년 기준 1983~1993년생의 자료에서 '22년까지의 최신 인구동태사건과 1994~1995년생의 출생코호트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립 지원에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 연구분야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통계 데이터 간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청년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신규지표를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통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현재는 정부 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자료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책임자	과 장	임영일 (042-481-2250)
		담당자	서기관	온누리 (042-481-2258)

일 러 두 기

□ 동 자료는 금년 12월 말부터 제공 예정인 인구동태 코호트 DB*와 다른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1983년생(2022년 기준 39세)과 1988년생(2022년 기준 34세)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변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임.

* 동일한 출생년도 인구집단에 대해 혼인-자녀출산-이혼-사망 등의 특성을 연계한 자료

** 등록센서스(인구·가구·주택), 일자리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등

□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하여 2022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983년~1995년생 내국인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은 제외됨

□ 조사(행정) 목적별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에 따라 항목별 작성 시점, 작성 기준 등 각 통계별로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혼인 및 이혼은 신고 기준으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혼인, 자녀 출산시 연령은 혼인 및 출생통계의 실제 조사자료를 활용함.

※ 활용 자료별 기준 시점 및 특성

자료명	작성기준시점	관련항목	비고
인구동태 코호트 DB	1983.1.1. ~2022.12.31.	혼인	초혼기준
		이혼	초혼기준
		출생(자녀출산)	국내 출생신고 기준
		사망	2022.10.31.까지 반영
인구총조사 인구·가구·주택	2022. 11. 1.	인구, 세대구성, 거처유형	
주택소유통계	2022. 11. 1.	주택 소유 여부	
일자리 행정통계	2022. 10.	경제활동 여부	무급 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생산 활동경영인, 무등록사업체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일 러 두 기

□ 이용상 주의사항

- [붙임1]은 1983년~1995년생의 인구동태 분석 결과로서 2022년 기준 27~39세의 청년층으로 아직 혼인 및 자녀 출산 등 생애 사건 경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코호트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또한, 매년 공표되는 인구동태 기간 통계 결과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기간 통계) 2022년 기준 인구동태 기간 통계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발생(신고)한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에 대한 통계로, 그들의 출산, 혼인, 이혼, 사망 등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통계임.
 - (코호트 통계)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특정 출생년도(예:1983년생)의 인구 집단이 2022년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이혼, 출산, 사망 등의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계임.
-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의 기준으로 주택소유통계 및 일자리행정통계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각 행정통계의 결과와 다름에 유의해야 함.
- 기준년도 변경 및 자료 보완 등으로 '21년도에 최초 제공한 2019년 기준 코호트와 년생별 출생자료가 상이함.
 - '21년도 보도자료와 동일한 '83년생과 '88년생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지만, 분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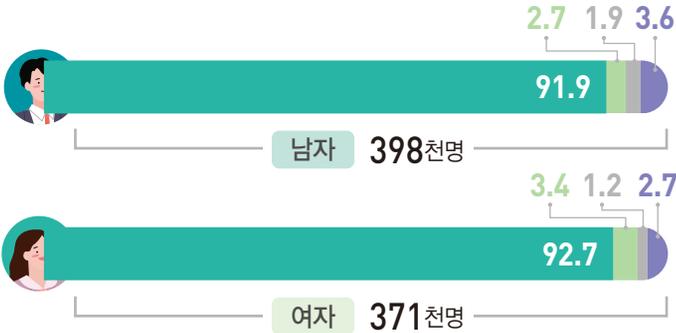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분석결과 1983년생의 생애과정 변화

인구동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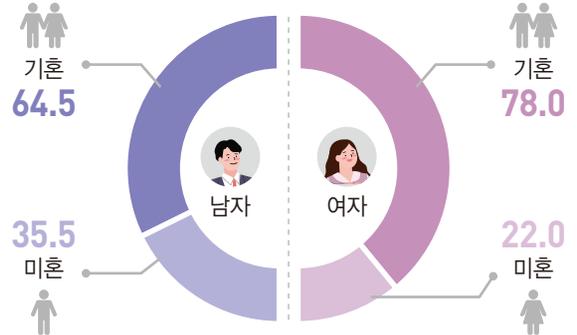
(단위: %)

출생자 및 거주지 비중

● 국내거주 ● 국외거주 ● 사망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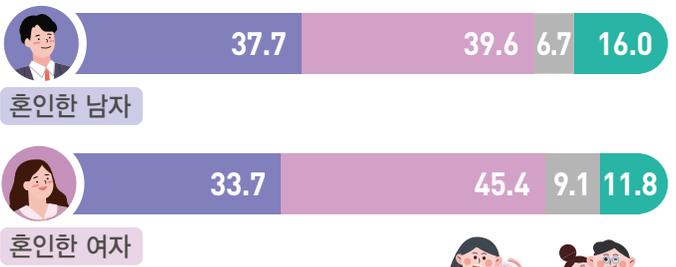
혼인 비중



※ 혼인을 많이 한 연령 : 남자30세, 여자29세

자녀출산 및 출산아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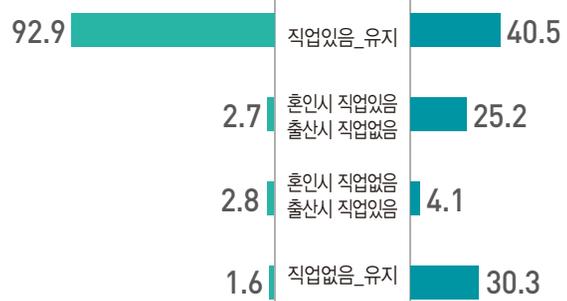
● 1명 ● 2명 ● 3명 이상 ● 자녀 없음



※ 첫째아 출산을 많이 한 연령 : 남자32세, 여자29세

혼인 및 출산 시 직업 변동 비중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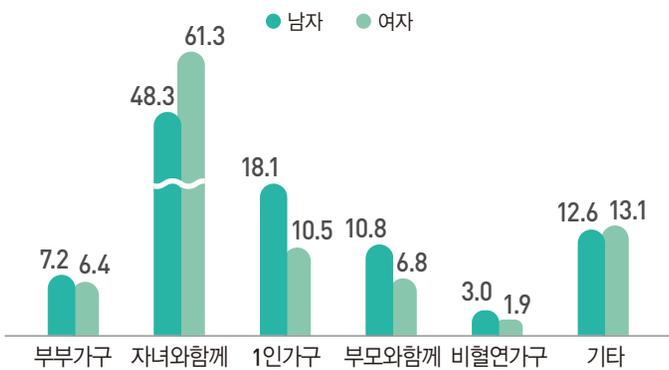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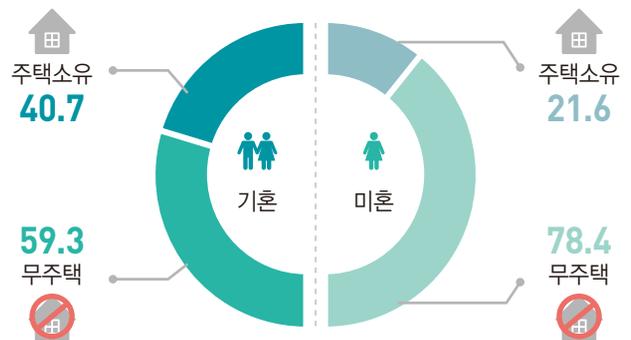
(단위: %)

세대·가구 유형 비중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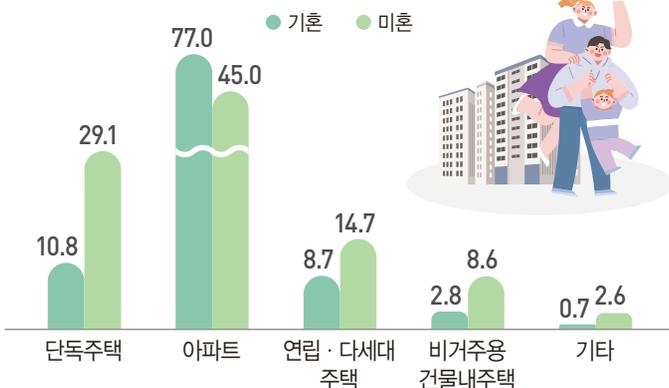


주택소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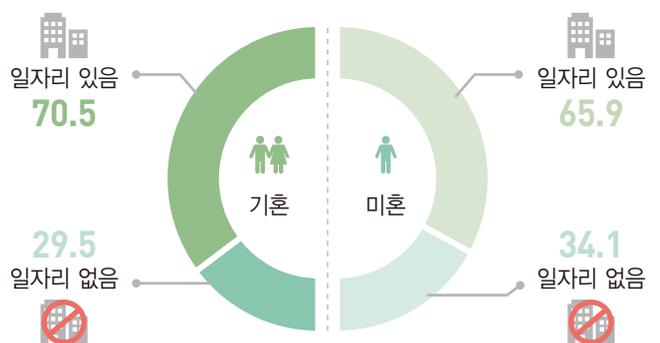


거처 비중

● 기혼 ● 미혼



경제활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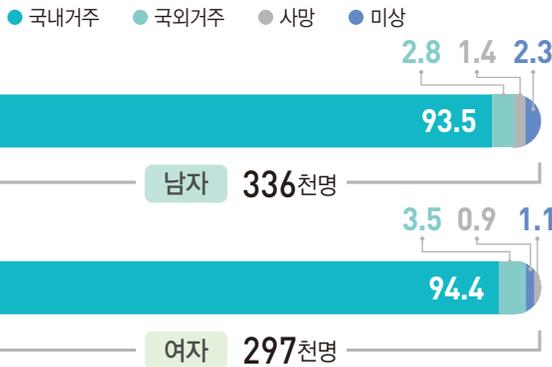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분석결과 1988년생의 생애과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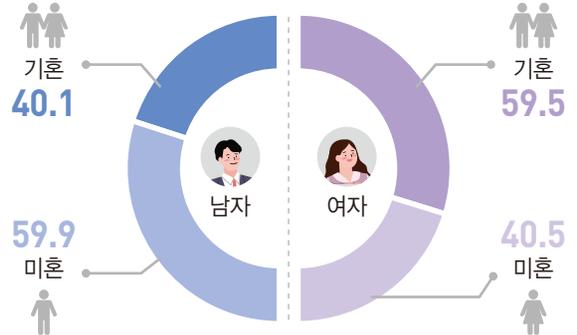
인구동태 특성

(단위: %)

출생자 및 거주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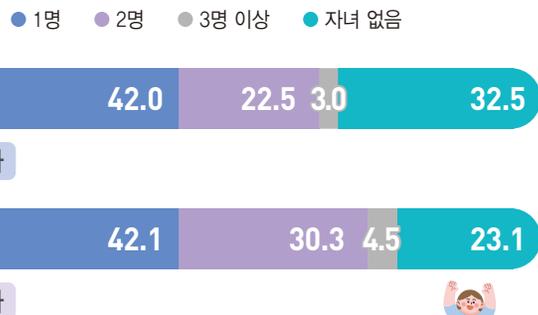


혼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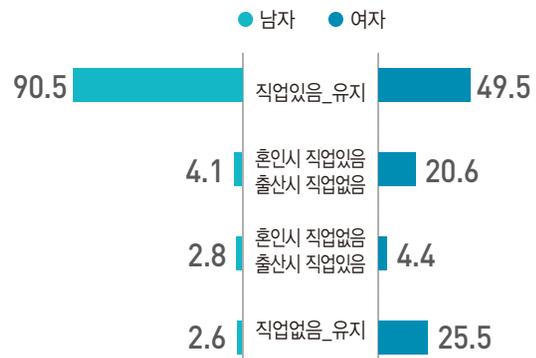


※ 혼인을 많이 한 연령 : 남자30세, 여자29세

자녀출산 및 출산아수 비중



혼인 및 출산 시 직업 변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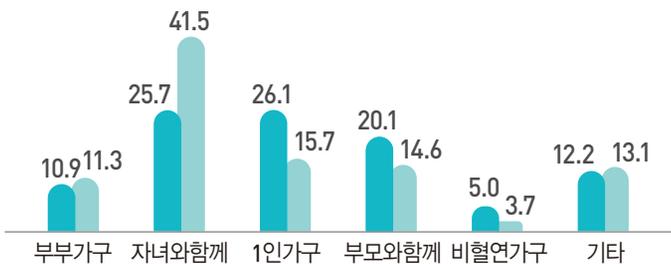
※ 첫째아 출산을 많이 한 연령 : 남자33세, 여자31세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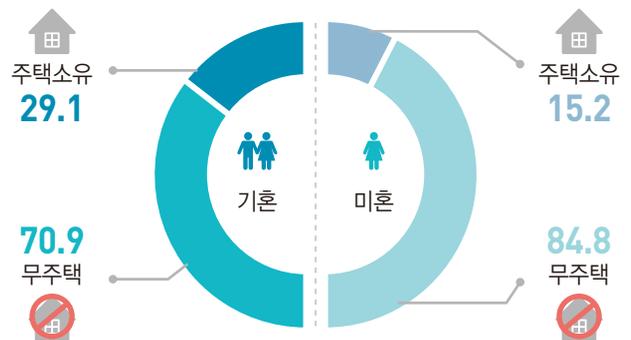
(단위: %)

세대·가구 유형 비중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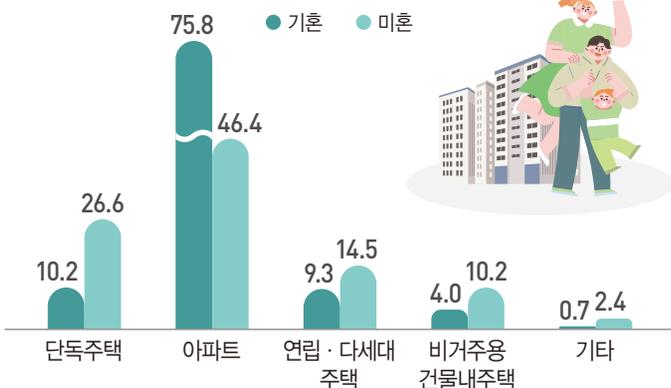


주택소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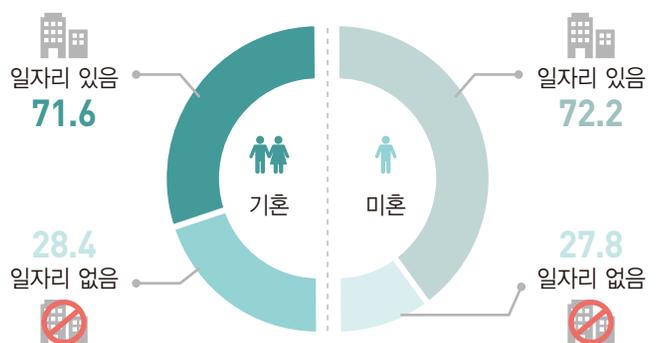


거처 비중

● 기혼 ● 미혼



경제활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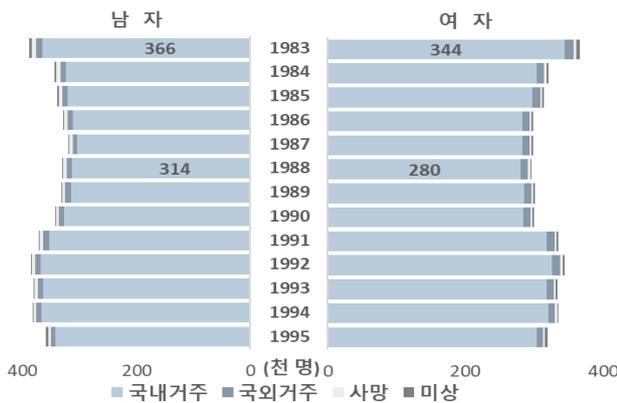
인구동태 특성

□ 1983년생, 1988년생 출생자 및 국내 거주자는 얼마나 될까?

○ 국내에서 출생*한 '83년생과 '88년생은 각각 76만 9천 명, 63만 3천 명임.

- 2022. 11. 1. 기준, 국내 거주자는 '83년생이 71만 명(출생자의 92.3%), '88년생이 59만 5천 명(출생자의 93.9%)임.

< 출생 및 거주 현황('83~'95년생) >



< 출생 및 거주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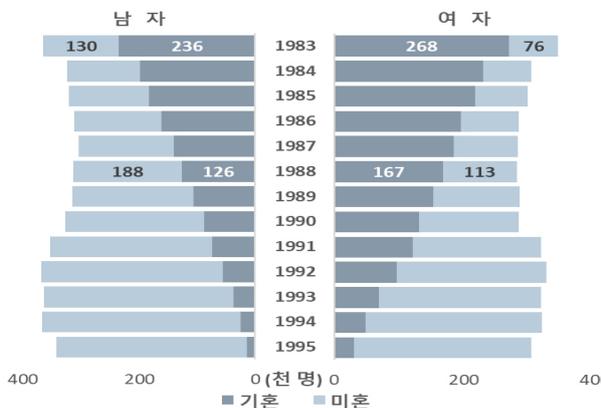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 포함되지 않음

□ 이들 중 혼인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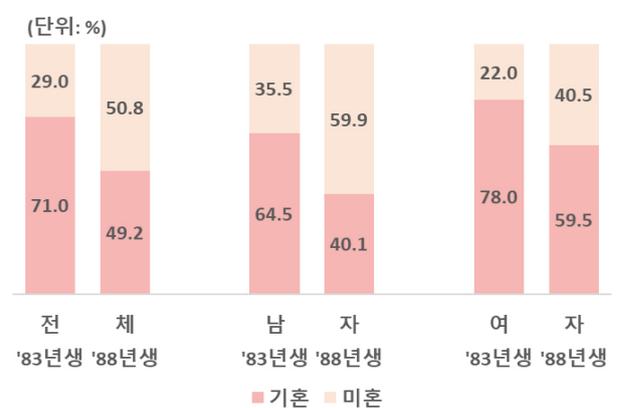
○ '83년생은 국내 거주자(71만 명) 중 71.0%가 혼인*을 하였고, '88년생은 국내 거주자(59만 5천 명) 중 49.2%가 혼인을 함.

- '83년생은 남자의 64.5%, 여자의 78.0%가 혼인을 하였고, '88년생은 남자의 40.1%, 여자의 59.5%가 혼인을 함.

< 국내 거주자의 혼인 여부 현황('83~'95년생) >



< 국내 거주자의 혼인 비중('83년, '88년생) >



* 혼인신고 기준으로 사별 및 이혼은 포함되나,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혼인한 이들은 첫 혼인을 몇 세에 했을까?

○ '83년생 중 혼인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0세 여자가 29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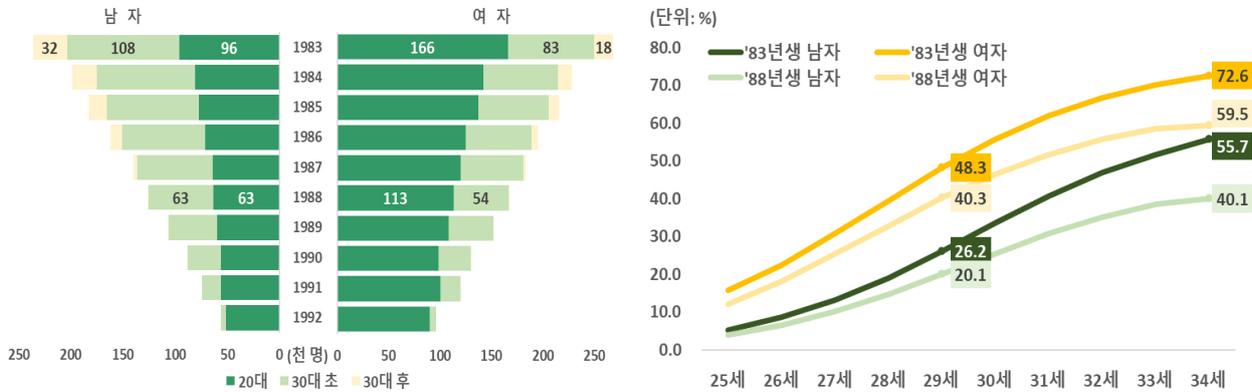
- 34세까지 혼인한 누적 비중은 '83년생은 남자가 55.7%, 여자가 72.6%이며, '88년생은 남자가 40.1%, 여자가 59.5%임.

['83년생의 연령별 혼인 현황]

(단위: 천 명)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남 자	7	12	17	21	26	27	26	22	18	14
여 자	16	23	28	30	30	26	21	16	12	9

< 국내 거주자의 연령별 혼인 현황('83년~'92년생) > < 국내 거주자의 연령별 누적 혼인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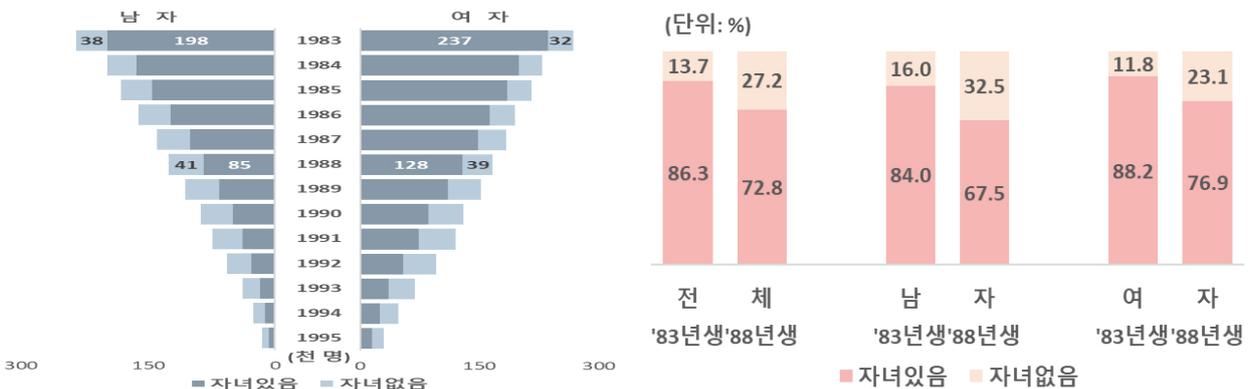
□ 혼인한 이들 중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 혼인한 '83년생(50만 4천 명) 중 86.3%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혼인한 '88년생(29만 3천 명) 중 72.8%가 자녀를 출산함.

- 혼인한 '83년생 남자의 84.0%, 여자의 88.2%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혼인한 '88년생 남자의 67.5%, 여자의 76.9%가 자녀를 출산함.

< 기혼자의 자녀 출산 현황('83~'95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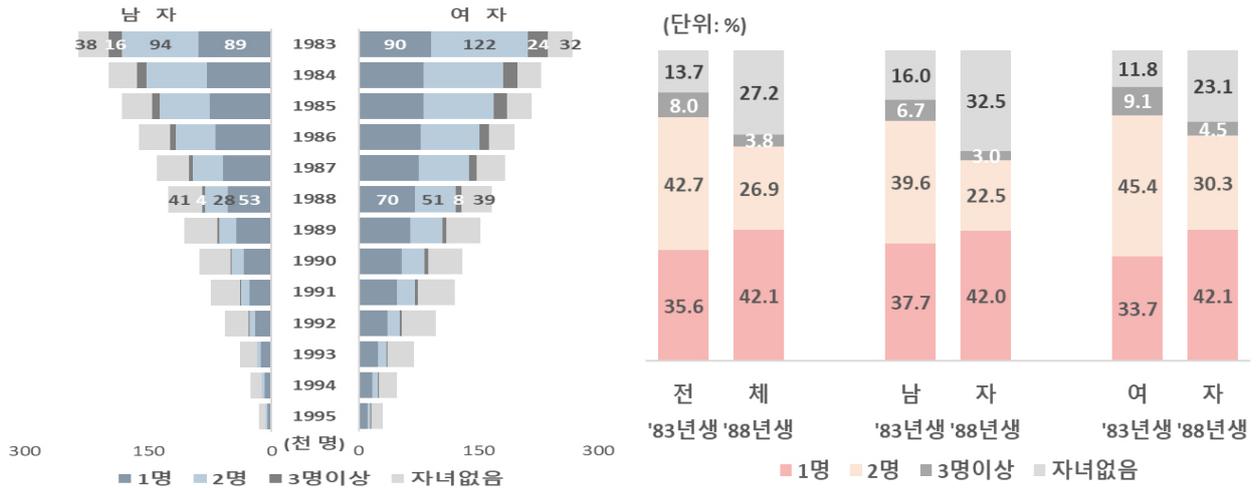
< 기혼자의 자녀 출산 비중('83년, '88년생) >



□ 혼인한 이들은 자녀를 몇 명 출산했을까?

- 혼인한 '83년생 중 자녀를 1명 출산한 비중은 35.6%, 2명 이상은 50.7%, '88년생은 자녀가 1명인 비중이 42.1%, 2명 이상인 비중은 30.7%임.
- 혼인한 사람 중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중은 '83년생 남자가 46.3%, 여자가 54.5%이고, '88년생은 남자가 25.5%, 여자가 34.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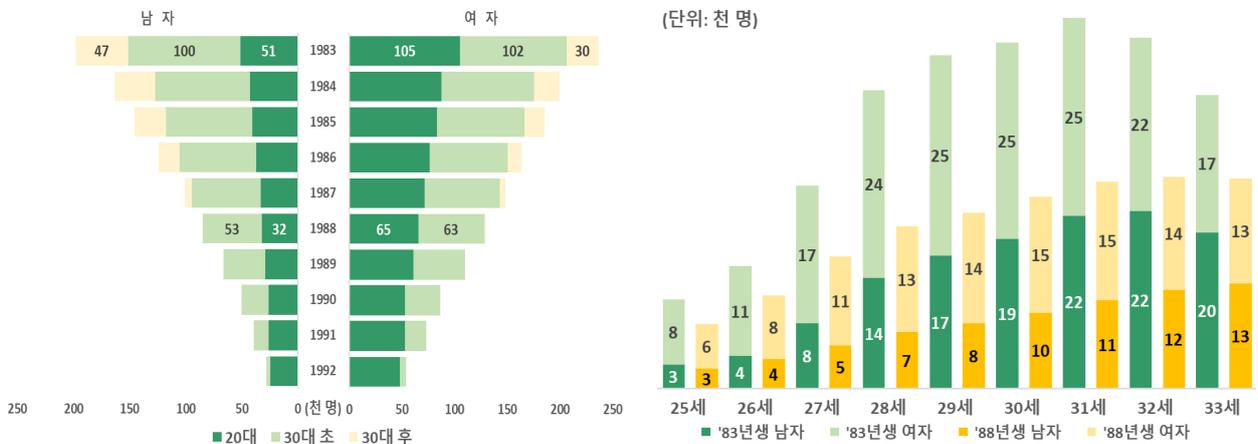
< 기혼자의 출산 자녀수별 현황('83~'95년생) > < 기혼자의 출산 자녀수별 비중('83년, '88년생) >



□ 혼인한 사람의 첫째아 출산을 몇 세에 했을까?

- '83년생 기혼자 중 첫째아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2세, 여자가 29세이고, '88년생 기혼자 중 첫째아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3세, 여자가 31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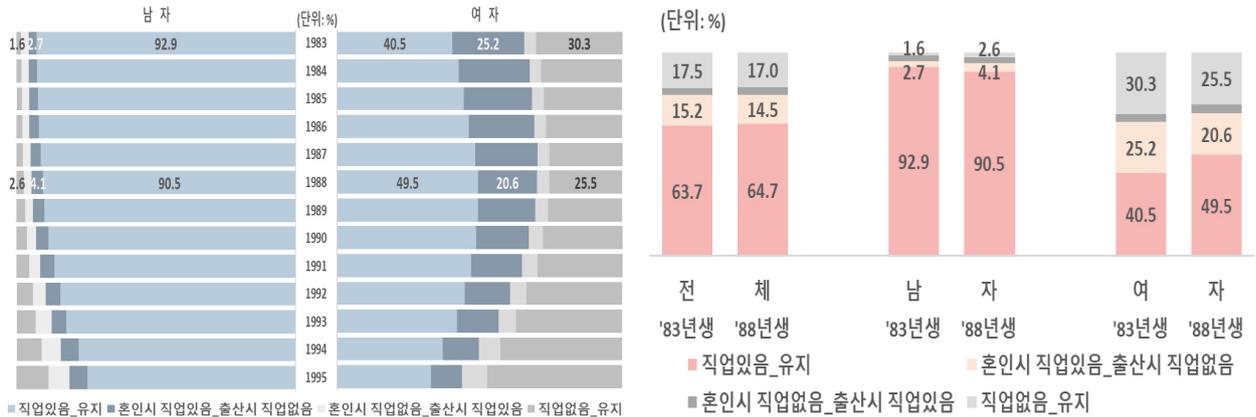
< 기혼자의 첫째아 출산 연령대별 현황('83년~'92년생) > < 기혼자의 첫째아 출산 연령별 현황('83년, '88년) >



□ 이들은 혼인(초혼) 당시와 첫째아 출산 당시 직업변동이 있었을까?

- '83년생 여자 중 혼인과 출산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40.5%이고, 혼인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2%임.
- '88년생 여자 중 혼인과 출산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49.5%이고, 혼인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0.6%임.

< 기혼자의 혼인·출산 전후 직업변동('83~'95년생) > < 기혼자의 혼인·출산 전후 직업변동('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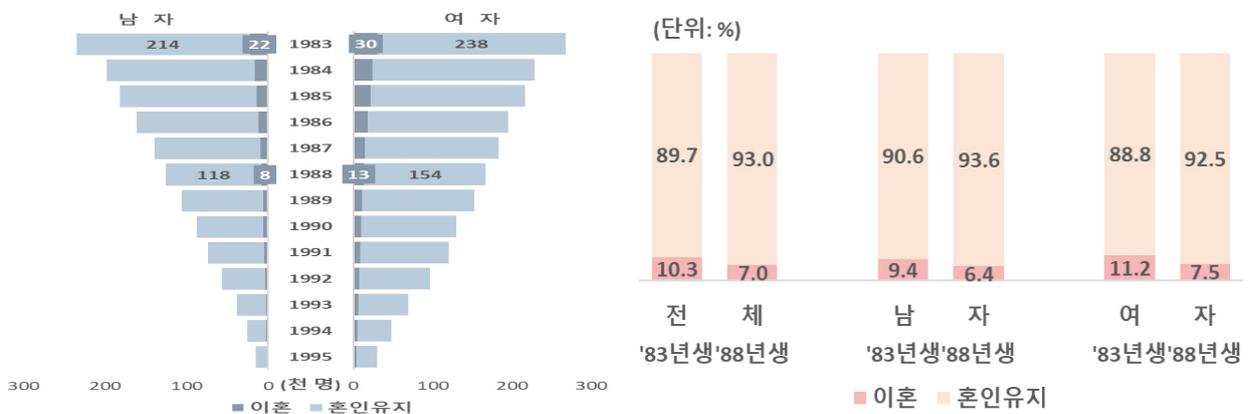


* 혼인 당시 및 첫째아 출산 당시 직업 항목 미상은 분석에서 제외함.

□ 혼인(초혼)한 이들 중 이혼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초혼 기준, 혼인한 '83년생(50만 4천 명) 중 10.3%가 이혼하였고, 혼인한 '88년생(29만 3천 명) 중 7.0%가 이혼함.
- 혼인한 '83년생 중 남자의 9.4%, 여자의 11.2%가 이혼하였고, 혼인한 '88년생 중 남자의 6.4%, 여자의 7.5%가 이혼함.

< 기혼자의 초혼 기준 이혼 현황('83~'95년생) > < 기혼자의 초혼 기준 이혼 비중('83년, '88년생) >



* 혼인 유지에는 사별 포함.

** 이혼은 초혼 기준으로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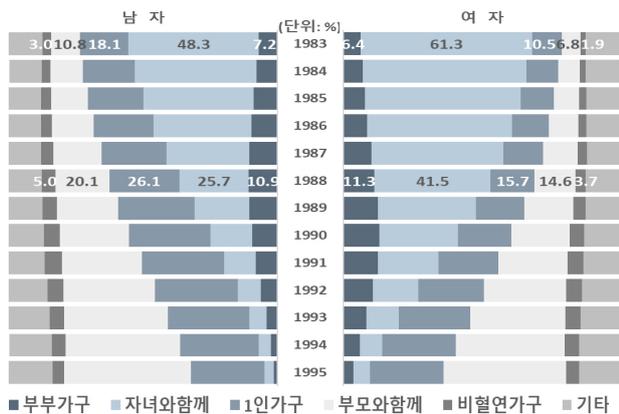
사회 · 경제적 특성

□ 그들은 누구와 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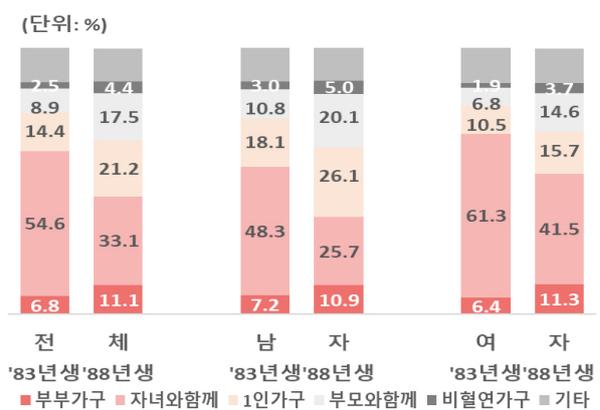
○ '83년생과 '88년생 모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혼자 사는' 사는 비중이 높았음.

- '83년생 남녀 모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88년생 남자는 '혼자 사는'(26.1%), 여자는 '자녀와 함께'(41.5%) 사는 비중 순으로 높았음.

< 성별 세대·가구 유형¹⁾ 비중('83년~'95년생) >



< 성별 세대·가구 유형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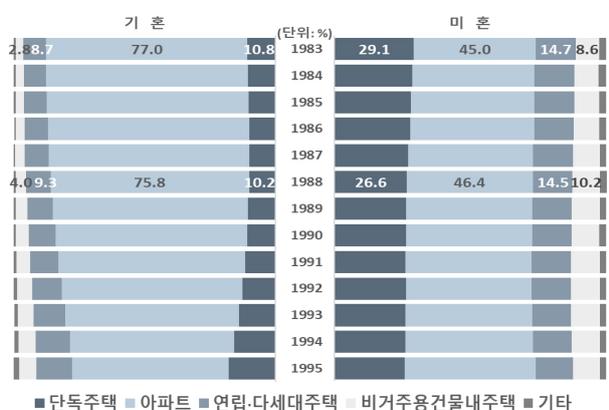


□ 그들은 어떤 거처에서 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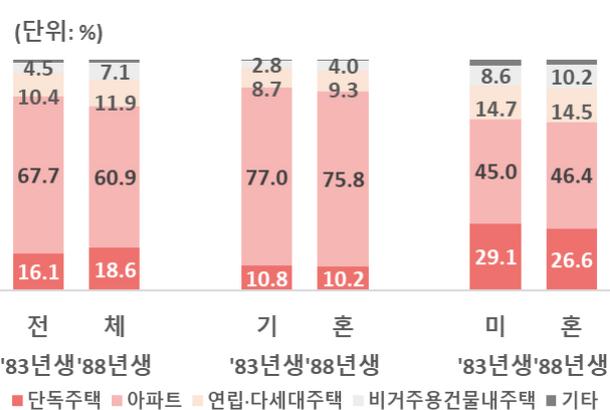
○ '83년생과 '88년생 모두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았음.

- '83년생 기혼자의 77.0%, 미혼자의 45.0%가 아파트에 거주, '88년생 기혼자의 75.8%, 미혼자의 46.4%가 아파트에 거주함.

< 혼인 여부별 거처유형 비중('83년~'95년생) >



< 혼인 여부별 거처유형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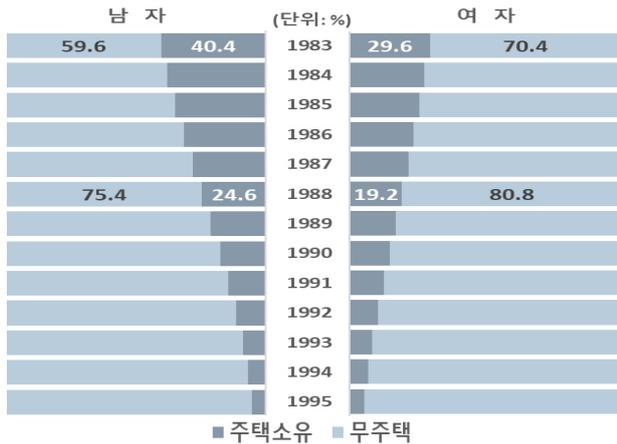


1) 부부가구: 1세대 중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2세대 가구 중 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2세대 가구 중 본인이 부모/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함 기타는 1세대 가구 중 부부가구 제외, 2세대 가구 중 부모/부 또는 모 + 자녀 가구 제외, 3세대 이상 및 일반 가구가 아닌 가구원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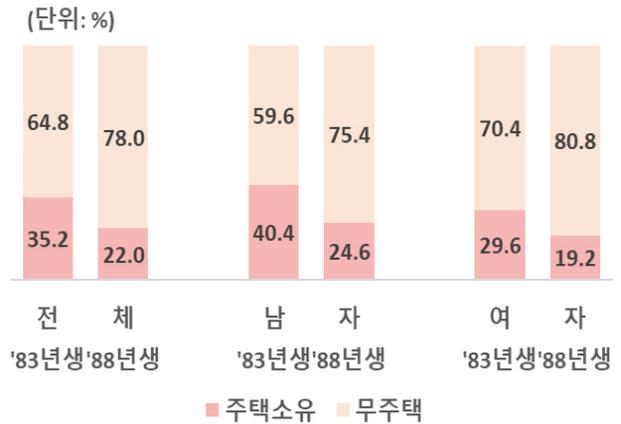
□ 그들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 '83년생 중 35.2%가 주택을 소유²⁾하였고, '88년생 중 22.0%가 주택을 소유함.
- '83년생 남자의 40.4%, 여자의 29.6%가 주택을 소유하였고, '88년생 남자의 24.6%, 여자의 19.2%가 주택을 소유함.

< 성별 주택소유 비중('83년~'95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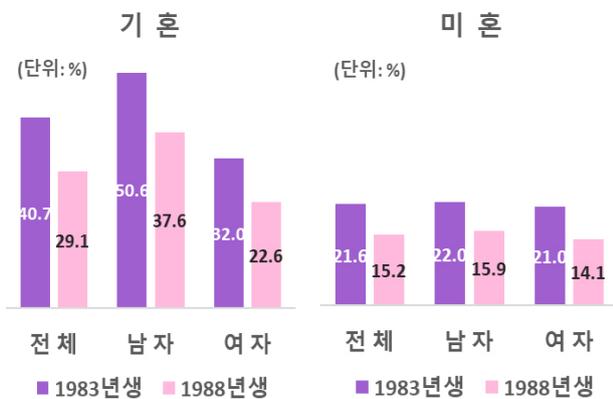


< 성별 주택소유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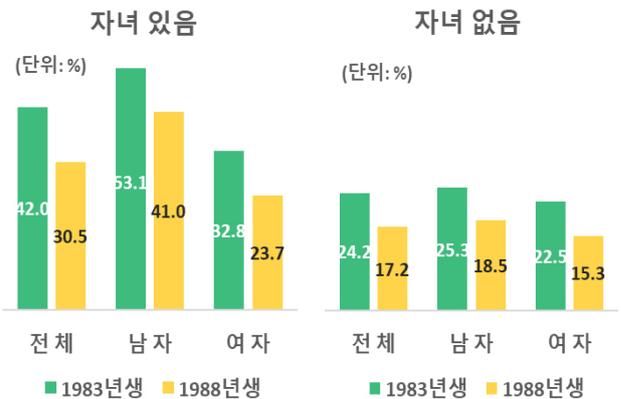


- 기혼자의 주택 소유 비중은 '83년생 남자가 50.6%, 여자가 32.0%이고, '88년생 남자가 37.6%, 여자가 22.6%임.
- 혼인한 사람 중 자녀가 있는 '83년생 남자의 주택 소유 비중은 53.1%, 여자가 32.8%이고, '88년생 남자가 41.0%, 여자가 23.7%임.

< 혼인 여부별 주택소유 비중('83년, '88년생) >



< 기혼자의 자녀 여부별 주택소유 비중('83년, '88년생) >



2) 주택의 지분율 및 단독/공동소유 모두 주택소유에 포함

□ 그들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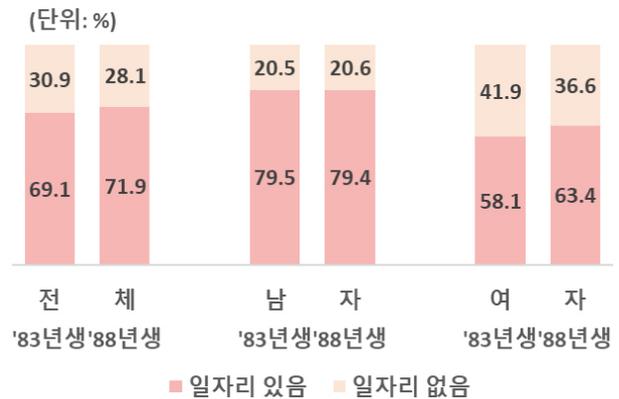
○ '83년생 중 69.1%가 경제활동³⁾을 하고, '88년생 중 71.9%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83년생 남자의 79.5%, 여자의 58.1%가 경제활동을 하고, '88년생 남자의 79.4%, 여자의 63.4%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경제활동 비중('83년~'95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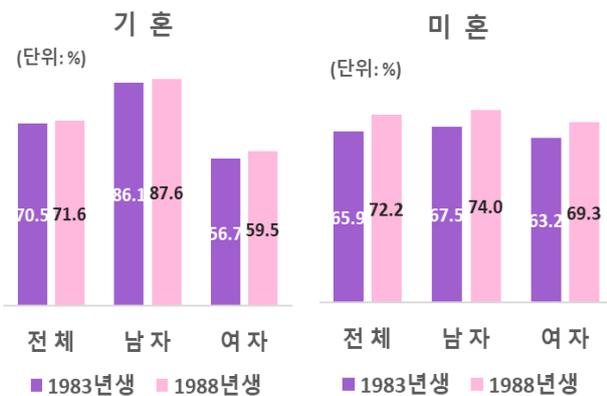
< 성별 경제활동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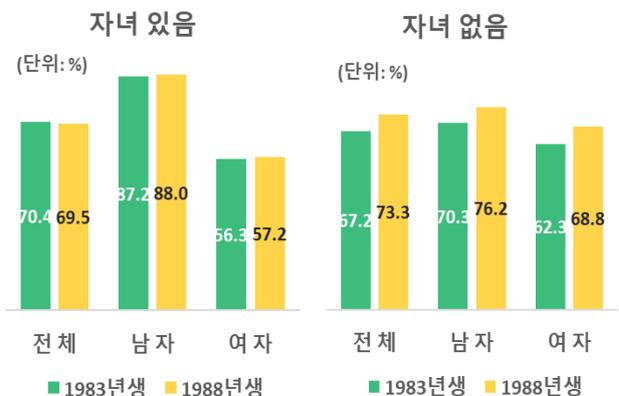
○ 기혼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83년생 남자가 86.1%, 여자가 56.7%이고, '88년생 남자가 87.6%, 여자가 59.5%임.

○ 혼인한 사람 중 자녀가 있는 '83년생 남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87.2%, 여자가 56.3%이고, '88년생 남자가 88.0%, 여자가 57.2%임.

< 혼인 여부별 경제활동 비중('83년, '88년생) >



< 기혼자의 자녀 여부별 경제활동 비중('83년, '88년생) >



3)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 무등록사업체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일자리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붙임2 인구동태 코호트 DB 개요

□ 인구동태 코호트 DB

- (정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DB
 - *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임
- (대상) 198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생(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축했으며,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 및 인구동태 사건을 추가할 예정임.

□ 구축 배경

- (이용자 수요 증가) 개별 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가 1981년 이후 장기간 축적되면서 자료간 연계를 통한 심층분석 이용자 수요 증가

□ 구축 방법

- (기초자료) 인구동태통계 DB*
 - * 출생·혼인·이혼통계 DB는 1981년, 사망통계 DB는 1983년부터 매년 개별로 구축·관리
- (연계 방법)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혼인-이혼-출생(산)-사망 DB 등 연계

□ 자료 제공

- (제공 대상) 1983~1995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 (제공 방법) SDC(통계데이터센터)에서 단계적으로 제공
 - 1단계('23년 말~): 학계,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 2단계('24년 말~): 일반 이용자
 - ※ 개인의 생애변동과정을 연계한 자료로, 제공 대상자를 한정된 관찰 기간 필요 [2021년 통계개발원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의 비식별화 및 자료 제공방안 연구” 결과]
- (제공 항목) 출생, 혼인, 자녀출산,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주요 특성 항목 등

통계명	구분	제공 항목
출생통계 (자녀출산)	본인	출산시_본인 연령, 최종학력, 직업, 출산시_결혼생활기간 등
	배우자	출산시_배우자 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출생아	출생시_출생년도, 성별,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출생지역 등
혼인	본인	혼인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실제결혼년월 등
	배우자	배우자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이혼	본인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배우자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사망	본인	사망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사망원인, 사망지역 등